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 12월 6일

루가 제14주일

스바니아 예언자, 성 아가베오스 순교자

제1조 /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톨 성찬예배에서

- 제1조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기송 / 205. B 239
- 사도경 : 애페소 5,8-19 / 봉독서 336
- 복음경 : 루가 18,35-43 / 132. B 8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뽀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기도의 스위치를 다시 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에 전념하시기도 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동시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인을 방문했던 어떤 사람은 성인에 대해 이렇게 중언했습니다.

“성인께서는 나에게 말을 할 때나, 전화 통화를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나, 난로를 피울 때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자신에게 그 가르침을 철저히 적용하며 사셨

습니다.

하루는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전기가 있고, 방엔 전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라는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고, 사탄의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인의 영혼은 밤낮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영적 친교를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육신의 치료와 영적 치유

사람들에게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다섯 가지의 감각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오감이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떠야 비로소 알게 되는 영적 기능 즉 ‘이해, 영적인 지식, 분별력, 인내, 자애’가 그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치유도 베푸신다

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 대목이 성서 곳곳에 나온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고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서 셋도록 이르시자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요한 9:1-7)

또한 예리고에 가시는 길에 구걸하는 눈먼 이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님께 여러 번 간청한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자 그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루가 18:35-43)

이들은 주님의 치유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묻혀 살고 있듯이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도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교부님들께서는 말씀하신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영적 소경이 된 우

리도 치유를 받으려면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육신의 고통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듯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 전 기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어 성서의 참된 진리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잘못된 삶을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교도들이 가르치는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가 있다.

‘분별력’을 갖고 참되고 올바른 언행을 하며 살아감으로써 추악하고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인내심’을 길러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 저주, 비방, 나태함, 자만 등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애로운’ 마음은 내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이 마치 나의 아픔 같이 다가와 이웃을 돋고 아끼는 삶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영적 기능은 오로지 성령께서 함께해주셔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이 생긴다면 온전한 영적 안목을 가질 수가 없다. 주님의 은총으로 육신을 지닌 지상에서도 온전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선인장과 애벌레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꽃과 나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가 요청한 것 대신에 선인장과 애벌레를 주셨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은 슬퍼졌다.

그는 자신이 요청한 대로 얻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느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셔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너무 바쁘시고, 나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실 겨를도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얼마가 지나고 나서 그는 하느님이 주신 것을 보러 갔다. 사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잊은 채 살펴보지도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놀랍게도 건조하고 못생긴 선인장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징그럽기만 하던 애벌레는 굉장히 우아하고 멋진 나비로 변해 있었다.

이처럼 하느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최고이며, 혹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도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했는데 (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얻게 된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을 믿고 나아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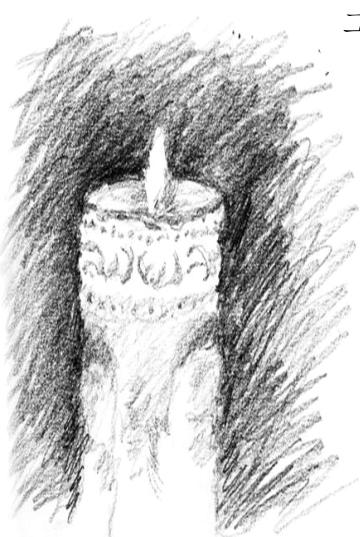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언제든 적절한 때에 주실 것임을 믿어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바라는 것이... 언제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의 가시는 내일의 꽃이라는 사실을!

▶ 아타나시아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2월 7일(목)에 축일을 맞이하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께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어, 주님의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니콜라스 축일 일정

- 12월 3일(주일) 성 니콜라스 축일 전 주일
【성찬예배와 사랑의 오찬 후 성당 역사에 대한 강의】
- 12월 5일(화) 오후 5시 30분 :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리따니아
오후 6시 45분 : 성찬예배
오후 8시 : 축일 만찬
- 12월 6일(수) 오전 9시 : 축일 조과
오전 10시 : 성찬예배
오전 12시 : 축일 오찬



■ 성탄절 준비 ▷ 오늘(3일) 주일 성찬예배와 사랑의 오찬 및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성탄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데즈모스 회원들께서는 다 함께 성당 마당과 선교회관 실내에 성탄절 장식을 꾸미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주일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의 집전으로 성찬예배와 함께 이디오피아인 유아 하일레 마카엘에 대한 세례성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12월 6일(수)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
- 12월 7일(목)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의 주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